

### 다시 푸는 경서

#### 법구경

##### 봉지품(奉持品) ②

所謂智者 소위지자  
不必辯言 불필변언  
無惡無懼 무공무구  
守善爲智 수선위지

인색하고 질투하고 헛된 꾸밈새나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것

謂能捨惡 위능사악  
根原已斷 근원이단  
慧而無志 헤이무에  
是爲端政 시위단정

이른바 지혜로운 이  
반드시 말 잘하지 않더라도  
두려움도 불안한 마음도 없이  
선을 지켜 지혜로 삼는다

이같이 나쁜 일 능히 버리고  
그 원인을 이미 끊어서  
지혜로워 노여움이 없으면  
이를 일러 품행이 바른 이라 한다

奉持法者 봉지법자  
不以多言 불이다언  
雖素少聞 수소소문  
身依法行 신의법행  
守道不亂 수도불기  
可謂善法 가위봉법

所謂沙門 소위사문  
非以除癡 비필제발  
妄語貪取 망어탐취  
有欲如凡 유욕여범

법을 받들어 지내는 이  
많은 말 하지 않고  
비록 들은게 적더라도  
법을 따라 몸소 실천하고  
도 지키기를 게리치 않으면  
이를 일러 참으로 법을 받든이라 한다

이른바 사문이란  
반드시 삭발한 것 뜻하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면서  
욕심대로 살면 범부인 것

謂能止惡 위능지악  
敬仰弘道 회향홍도  
慚心滅意 식심멸의

### 탐욕 부리면서 욕심대로 살면 '범부' 바른 도 넓히며 생멸심 여의면 '사문'

所謂老者 소위노자  
不必年耆 불필년기  
形熱氣白 형열기백  
意愚而已 준우이이

是爲沙門 시위사문

이른바 장로라 하는 이  
반드시 나이 많은 것만 아니다  
형색이 늙고 머리 털 흰 것은  
다만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것일  
뿐

이같이 나쁜 일 능히 그치고  
바른 도를 더욱 더 넓히며  
마음쉬어 생멸심 여의면  
이를 일러 사문이라 한다

所謂比丘 소위비구  
非持乞食 비시걸식  
遊行經彼 사행음피  
稱名而已 칭명이이

이른바 비구란  
때맞춰 밥을 비는 것만을 말하지 않  
는다

이른바 사문이란  
때맞춰 밥을 비는 것만을 말하지 않  
는다

謂捨離法 위회체법  
順轉慈仁 순조자인  
明達禪解 명원정결  
是爲長老 시위장로

진리의 법을 가슴에 품어  
바르게 따르며 자비롭고 여질어  
진리에 밝고 심행이 깨끗하면  
이를 일러 장로라 한다

謂捨離福 위사죄복  
淨修梵行 정수법행  
慧能破惡 혜능파악  
是爲比丘 시위비구

所謂端政 소위단정  
非色如花 비색여화  
慚嫉虛飾 간질허식  
言行有進 언행유위

이른바 품행이 바른이란  
그 형색이 꽃처럼 고와서가 아니라

이른바 죄와 복을 다 버리고  
욕심없는 깨끗한 행을 닦아서  
그 지혜 능히 악을 깨뜨리면  
이를 일러 비구라 한다

龍眼

## 큰스님 수행한담

# “가르침 실천하지 않으면

## 지종스님 (영광 불갑사 조실)

“자기 주인공 찾지 않으면  
살아 있다해도 송장 같으니  
항상 본성을 참구하세요”

조사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시물해(不是物兮) 조병무(早辨無)  
하다망상(許多妄想) 복하위(復何爲)  
관간침장(慣看蠶桑) 연라니(煙羅裏)  
무수호원(無首胡猿) 도상수(倒上樹)  
나라.

이말은 '어찌하여 쓰잘데 없는 손가락  
이 하나 더 붙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느  
나. 사람은 만물지종의 영장인데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현혹시키고 앉았  
느냐. 산봉우리에 안개가 가득한 산중 나  
무를 머리없는 원숭이가 거꾸로 올라가  
는 격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말과 생각은 하기쉽지만 실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천이 없는 것은  
울창한 나무에 쓸데없는 침범들이 감고  
올라와서 나무를 천천히 죽여버리는 이  
치와 같습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늘 금강반야비라밀경을 지니는  
것 또한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지요. 불  
자라면 실천수행으로 탐진치 3독을 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실천하  
지 않고 살면 뿌리살린 나무처럼 허망한  
삶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좌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  
록 자신의 본지풍광을 돌아 볼 줄 알아  
야 합니다. 항상 본성을 참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계를 움직이는 주인공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다 해도 썩은 송장  
과 다를바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송장을 이곳으로 끄집어 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해  
요. 그것이 중요하합니다. 도대체 나를 움  
직이는 이능이 어떤 놀이나 하고 유심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합니다. 불도는 항상  
가고 오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  
한 곳에 있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나는 19세때 백양사에서 출가했습니다.  
요즘이야 행자들에게 처음부터 공부를  
가르치지만 그때는 행동이 먼저였어요.  
말이 필요없었죠. 행동 하나 보고 중을  
만들 기도하고 만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자생활만 3년도  
하고 5년도 했어요. 옛날에는 출가했다고

해서 바로 머리를 깎아주지 않았어요. 그  
래서 머리를 수건으로 질끈 동여매고 행  
자생활을 했습니다.

행자생활 1년만에 목담스님이 나를 보  
더니 상좌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것을 미  
리 아셨는지 만담스님이 계 받으리며 머  
리를 깎아주셔서 중노릇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고도 만담스님 회상에  
가서 다시 행자의 과정을 살아야 했는데  
당시는 큰스님 밑에서 불법의 진리를 깨  
우쳐 간다는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  
니다.

원래 출가의 본지는 무상한 세상의 근  
본을 찾기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뜻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 1922년 4월 정성 초
- 1938년 백양사에서 법안스님을  
은사로 득도
- 백양사 주지 역임
- 광주 경광학원 이사장 역임
- 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영광 불갑사에 주석



“요즘 점집에 사람이 끊는다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과보에 이자만 더 붙어요”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고 나무를 하여  
노모를 모셨던 육조스님은 저자거리에  
나무를 팔러갔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  
)을 읽는중에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  
기심(而生其心)'이라는 소리를 듣고 단  
번에 깨우쳤습니다.

우주의 근본을 깨우치는 것은 승속이  
다르지 않아요. 육조스님이 홍인스님에게  
가서 아직 머리깎은 스님도 아닌 행자로  
서 5조의 법인을 받는 경지야 말로 불보  
살의 화신 아니면 진상에 수행을 많이  
쌓아 이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조 혜능스님을 본받으려 노

력하며 큰스님 시봉을 하는데 만담스님  
이 어느날 '이뭐꼬'라는 화두를 내려 줬  
어요. 그리고 항상 물어봐요.  
“내가 의심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름과  
뜻이 없다. 어듣기는 칠룡보다도 어두워  
서 내다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어. '시심  
마' 그 놀이 무엇이나? 어떤 놀이나?” 이  
렇게 물어보시다가 금방 대답이 만나오  
면 ‘딱 머리에 떠올라야지, 안 떠오르면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호통하시곤  
하셨습니다.

이런 호통을 듣지만 아무리 생각해보  
아도 도통 머리에 안 떠올랐어요. 밝기는  
일월보다도 밝고 맛은 이상하게도 달다.  
또 검기는 칠룡보다도 겁다니 이것이 무  
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보는데, 듣는데,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데... 에이 이상  
하다. 내버려야지, 있어버려야지, 하면서  
도 그게 안되는 거예요. 만담스님께 5~6  
년간 경책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만담 큰  
스님 회상에서 살았던 그때가 지금도 그  
립습니다.

만담스님은 항상 겸손하시고 대중과  
함께 수행했지요. 요즘도 젊은스님네들을  
보면 자상하면서도 엄하게 지도해 주시  
던 만담스님이 생각납니다.

스님은 올곧으신 분이셨는데 수행은  
물론 후세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셨지요.  
민중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해화전문학교  
교장을 지내시고 광주에 정광중·고등학교  
를 설립했습니다.

그분은 사심이 없고 오직 '불교에 내용  
을 바치겠다. 불교만이 살 길이다. 전인  
류가 불교사상을 가져야지 올바르게 살

불 법 의 생활 화 . 현 대 화 . 세 계 화

###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7년판 현대불교신문

###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97년 한해를 총집결한  
합본 '97년판을 발간합니다.



'97년 합본집

- 합본집( '97년판) : 제109호(1997년. 1.1)-제156호(1997.12.24)
- 가 격 : 60,000원(발송비 별도)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대) 02)737-8881 팩스 : 02)737-0697

앞서가는 불자들의 필독잡지

##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계간 '불교의 문화' 제 4호(통권 24호)



칼럼/사건으로 보는 성모기행  
불교 꽃문양의 세계  
지상대담 / 불교방송 교리강좌 중계  
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1  
오늘을 사는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

인터넷불교 / 세계불전 전신화의 현주소  
인물포커스 / 불교역사인물재발견 시리즈  
요승으로 물린 개혁가, 신돈  
지상대담  
신라불교의 거목, 원효와 의상의 화엄관

특별기획 / 세계의 사상이  
동서 사상의 가교자, 禪僧 토마스 머튼  
불교계 진단 / 사리신앙의 문제점과 대책  
잘못된 사리신앙 행태 달라져야 한다

'97 청정운동 동참기  
포커스 / 종교다원시대 특정 개인종교의 문제  
칼럼/사건 2 / 한국의 佛 2  
서민들의 삶을 해학으로 승화시킨 정승의 미학  
생태탐사기  
백두산의 식물 생태, 울릉도의 자연과 문화

세계의 불교  
1. 영혼의 땅, 티베트  
2. 두 편의 영화로 이룬 불교의 미국화(?)

발굴 / 홍인포 거사의 영불형상법  
성본 스님의 禪 이야기  
禪의 풍토  
불교관계저자 총합색인  
불교계 주요행사일지

구독신청 및 문의  
· 전화 : 02-719-1865, 전송 : 02-719-5052  
· 직접 은행에 입금하시면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송금계좌 : 국민은행 827-25-0006-047 외환은행 189-13-02685-0  
우체국 012245-0000499-11 농협 069-01-197161  
지리번호 7630868 예금주 : (재) 대한불교진흥원

특집 / 문화사대주의를 진단한다  
우리의 모국은 어디인가, 표절과 문화사대주의,  
문화사대주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방안